

특집

IMF체제하의 양돈장 경영전략

고금리, 고사료가 시대의 양돈 경영



최진호 소장
(최진호연구소)

배합사료원료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의 인상은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국내의 모든 사료회사들은 엄청난 환차손으로 휘청거리고 그나마도 원료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일부 사양가들에게는 배합사료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최근 단기외채의 중기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미국의 GSM 계획에 의한 사료곡물 도입의 길이 열림으로써 사료원료의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듯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회복하여 어느 정도 숨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1달러당 800원선까지 회복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달러당 1,200~1,300원선으로만 유지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환율이 800원대에서 폭등하기 시작하여 1,000원을 돌파할 때만 해도 큰일났다고 생각하였는데 한때 2,00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서서히 하향세를 보이게 되니 이제는 1,200원 정도만 되어도 감지덕지할 것 같은 기분이니 그 엄청난 충격에 많이 면역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확실한 살아남는 길이다.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되었든 환율이 안정이 된다하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고회환율임에 틀림없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새로운 경제여건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동안 배합사료의 수급에 차질을 보이면서 가축의 투매현상이 나타나 양돈의 경우 사육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20%정도 줄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30%정도 줄었다고도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인상으로 돈육생산



비는 올랐다고 하나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오름으로써 양돈사양가들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돈육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여도 환율상승으로 수입의 채산성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의 높은 돈육가는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소득이 또한 감소할 것이므로 육류의 소비가 감소할 것은 분명한데 공급의 감소로 인한 높은

돈육가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는 소비의 감소 폭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본다.

지난 약 2개월 동안 우리나라 축산업계에는 큰 회오리바람이 지나갔으나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으로 어려운 시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 예상되고 실업자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사실이고 바로 우리 주변에서 느껴지고 있는 현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양돈산업도 소비의 감소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불을 보듯 확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돈업

계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역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요구된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확실한 살아남는 길이다. 아직도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농장이 있다면 빨리 기록체계를 갖추어 기록에 의한 사양관리 및 경영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농장이라면 차라리 지금 문을 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축산경영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갑작스런 IMF한파로 농장들은 사료대금을 마련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1~2개월씩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현찰 또는 선입금이 아니면 사료를 공급하지 못하겠다고하니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수년간 돈가시세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었다는 점이 사

〈표1〉 환율변동에 따른 비육돈의 생산비 변동

| 구 분 | 환 율 | | | | | |
|------------|----------------|---------|---------|---------|---------|-------|
| | (원/\$) (지수) | 850 | 1,000 | 1,200 | 1,400 | 1,600 |
| 사료원료비(원/두) | 111,090 | 125,615 | 143,557 | 160,753 | 178,696 | |
| 경 영 비(원/두) | 149,207 | 163,732 | 181,674 | 198,870 | 216,813 | |
| 생 산 비(원/두) | 160,890 | 175,415 | 193,357 | 210,553 | 228,495 | |
| 생산비지수 | 100 | 109 | 120 | 131 | 142 | |

* 체중 110kg 비육돈 기준

양가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의 수익을 어느 정도 비축해 두었던 사양가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농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차제에 사료를 외상으로 사용하는 농장들은 단계적으로 외상을 줄여가면서 궁극적으로 현찰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금리가 높기로 유명한 나라이다. 게다가 외상 사료대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은행대출이자보다 높은 것이 통례이며 IMF이전에도 월 1.4~1.5% 정도를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연이율 16.8~18%에 해당하는 고금리인 것이다. 그나마 IMF 이후에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월 2.0%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금리의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양돈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사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이

사회 여러 곳에 거품의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그런 대로 굴러갔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거품을 제거해야할 때가 되었고 우리 양돈산업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육류수출입협회가 추정 한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원료비, 양돈경영비 및 생산비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에 의하면 환율이 850원/\$일때에 비해서 1,400원/\$으로 상승(64%상승)하면 체중 110kg짜리 비육돈 생산비는 160,890원에서 210,553원으로 31% 증가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료비의 증가는 약 45%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돈생산비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사료비의 비중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료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며 사료비의 절감을 위한 자가사료 생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장에서 자가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수입 원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인데 최근 정부에서는 자가사료를 생산하는 농장에 대해서 수입원료를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확정되어 실시된다면 대규모 농장이나 단지 등에서는 자가사료생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기존 배합사료회사의 시설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장스스로 자가사료 생산 시설에 추가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료회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임가공에 의한 자가사료생산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가사료를 생산한다고 할 때 사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최진호연구소와 같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구하면 해결될 것이다. **養豚**

